

로 실현될 수 있다.

- (38) ㄱ. 형주는 부장에게 인사를 했다.  
 ㄴ. 부장은 형주를 오해를 했다.

(39)의 자료는 몇몇 이항술어명사와 전환기능동사의 결합관계를 보여준다.

- (39) 검문을 (받다 + 당하다)  
 따돌림을 (받다 + 당하다)  
 버림을 (받다 + 당하다)  
 영향을 받다  
 (오해 + 의심)-을 (받다 + 사다)  
 욕을 (\*받다 + 먹다 + 듣다)  
 인사를 받다

- 삼항술어명사 구문

삼항술어명사의 전환기능동사 구문에서는 표준기능동사구문에서 보통 N-에게로 실현되는 제 3논항이 주어화된다.

다음에서 연락의 경우만 예로 보이기로 한다.

- (40) ㄱ. 부장은 형주에게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연락했다.  
 ㄴ. 부장은 형주에게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 달라는) 연락을 했다.  
 ㄷ. 형주는 부장에게-(서+<sup>2</sup>E)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ㄹ. 형주는 부장으로부터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ㅁ. 형주는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는 부장(으로부터+E)-의 연락을 받았다.

(40) ㄷ-ㅁ이 전환기능동사 구문에 해당하는데, 이들 구문은 제 1, 제 2논항이 모두 술어명사구에서 분리될 수도 있고, 제 1논항만 분리될 수도 있으며, 이 두 논항이 모두 술어명사구에 통합되는 것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41)는 몇몇 삼항술어와 전환기능동사와의 결합가능성을 보여준다.

- (41) 보고를 받다  
 비판을 (받다 + 당하다)  
 전화를 받다  
 질문을 받다

나. 자격보어 위치의 Npr과 결합하는 Vsup

이 유형에 속하는 Vsup는 한국어의 경우 아주 제한되어 있으나 Npr에 뒤따르는 격조사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하위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Npr-에

- |                        |                      |
|------------------------|----------------------|
| (42) (고려 + 계산)-에 놓다    | (반격 + 비판)-에 나서다      |
| (사랑 + 절망)-에 빠지다        | 비탄에 (빠지다 + 잠기다 + 젖다) |
| 실의에 (빠지다 + 잠기다 + 젖다)   | (사형 + 엄벌 + 극형)-에 처하다 |
| (생산 + 훈련 + 재조사)-에 들어가다 | (실행 + 실천)-에 옮기다      |
| (심사 + 토론)-에 붙이다        | 합의에 이르다              |

- Npr-로

- (43) 목표로 삼다<sup>20)</sup>  
실패로 돌아가다

다. 주어위치의 Npr과 결합하는 Vsup

- 무논항술어명사 구문

- |                              |                |
|------------------------------|----------------|
| (44) (비 + 눈)-이 (오다 + 내리다)    | 바람이 (불다 + 일다)  |
| 안개가 끼다                       | (천둥 + 번개)-가 치다 |
| (소문 + 전염병)-이 (돌다 + 퍼지다)      |                |
| 전쟁이 (나다 + 터지다 + 일어나다 + 벌어지다) |                |
| (난리 + 사고 + 소동)-이 나다          |                |

- 일항술어명사 구문

- |                 |                     |
|-----------------|---------------------|
| (45) 침묵이 흐르다    | (긴장 + 응고 + 응결)-이 되다 |
| (전복 + 폐막)-이 되다  | (손해 + 피해)-가 가다      |
| (한숨 + 웃음)-이 나오다 | 잠이 들다               |

- 이항술어명사 구문

- |             |                          |
|-------------|--------------------------|
| (46) 해당이 되다 | (관심 + 동정 + 애착)-이 가다      |
| 승진이 되다      | (납득 + 믿음 + 수긍 + 의심)-이 가다 |

---

20) 목표를 삼다도 가능하다

일치가 되다	영향이 (가다 + 오다)
심취가 되다	정미 (가다 + 떨어지다)
감동이 오다	용기가 (있다 + 없다)

- 삼항술어명사 구문

- (47) (연락 + 전화 + 통지)-가 (되다 + 가다 + 오다)  
 (질문 + 주장 + 비판)-이 나오다  
 보고가 (되다 + 들어가다 + 들어오다)  
 명령이 떨어지다<sup>21)</sup>

라. 준기능동사 : 사역기능동사

$N_{pr}$ 이 대격보어 위치에 분포되어 표준기능동사 구문과 평행성을 보이나, 의미상 사역관계를 규칙적으로 표현하는 구문의 동사이다. 표준기능동사 구문(또는 단일동사/형용사 구문)을 내포하는 -게 하다 사역구문과 환연관계가 성립되어 복문분석이 가능하지만, 논항이 외재적으로 실현된 분리술어명사구를 통사논항으로 지배하고  $V_{sup}$ -게 하다가 단일동사로 어휘화되어 실현된 점에서 기능동사와 유사하다. 하다와 대조적으로 쓰이는 시키다가 전형적인 사역기능동사이다.

다음은 하다 구문과 시키다 구문의 대조를 보여준다.

- (48) 형주는 그 문제를 연구를 하였다.  
 (49) ㄱ. 부장은 형주-(에게 + 가 + 를) 그 문제를 연구를 하게 했다.  
 ㄴ. 부장은 형주-(에게 + 를) 그 문제를 연구를 시켰다.  
 (50)은 사역기능동사로 분석될 수 있는 일부 예를 보인다.

- (50) 용기를 (\*시키다 + 주다) [=갖게 하다]  
 창피를 (\*시키다 + 주다) [=창피하게 (하다 + 만들다)]  
 희망을 (\*시키다 + 주다 + 안겨주다 + 붙여넣다) [=갖게 하다]  
 변화를 (\*시키다 + 주다 + 가져오다 + 초래하다 + 주다) [=변화하게 하다]  
 오해를 (\*시키다 + 낳다 + 빚다 + 자아내다 + 불러일으키다)

21) 다-만 유형의 기능동사를 한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거리가 되는 앞의 (28) ㄱ-ㄴ 계열의 동사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그 사례가 되는데, 이들 동사에 대해서도 비기능동사 분석을 채택하기로 한다.

- xii) ㄱ. 조사에 착수하다  
 ㄴ. 전쟁이 발발하다  
 ㄷ. 사고가 빈발하다

#### IV. 기능동사와 술어명사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술어명사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술어의 어휘적 투사인 동사나 형용사에 대응되는 술어명사의 존재가 확인된다.

(51) ㄱ. 공격	공격하다	각오	각오하다
외출	외출하다	비준	비준하다
ㄴ. 싸움	싸우다	달리기	달리다
셈	세다	벌이	벌다
(52) ㄱ. 창피	창피하다		
무안	무안하다		
불만	불만스럽다		
ㄴ. 어려움	어렵다		
부끄러움	부끄럽다		

(51) ㄱ-ㄴ은 각각 한자어  $N_{pr}$ 과 단일어동사와의 대응, 고유어  $N_{pr}$ 과 단일어 동사와의 대응을 보여주고, (52) ㄱ-ㄴ은 각각 한자어  $N_{pr}$ 과 단일어 형용사와의 대응, 고유어  $N_{pr}$ 과 단일어 형용사와의 대응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유한국어 동사/형용사는 대응되는 술어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53) ㄱ. 가다	*감	끼다	*김
팔다	*팸	사다	*삼 <sup>22)</sup>

22) 다음과 같이 분포가 극단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므형 요소도 파생명사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xiii) ㄱ. 틀리다	틀림없다 - 틀림이 없다
ㄴ. 어기다	어김없다 - 어김이 없다
ㄷ. 버리다	버림받다 - 버림을 받다
ㄹ. 따돌리다	따돌림받다/따돌림당하다 - 따돌림을 (받다 + 당하다)
ㅁ. 부르다	*부름받다 - 부름을 받다

술어명사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참고로 다음의 관찰을 지적해 둔다.

- 떨다, 빼다, 피우다 등의 일부 기능동사 구문에서 -을 보어위치에만 분포되는 요소들은 모두 술어명사로 한정한다.

xiv) 부지런, 앞전, 점잔, 호들갑...

- 다음과 같은 연어적 또는 숙어적 표현에 지극히 제한적인 분포로 사용되는 요소들 역시 술어명사로 분석한다.

xv) ㄱ. 유서가 깊다	ㄹ. 유명을 달리하다
ㄴ. 서술이 시퍼렇다	ㅁ. 악명이 높다
ㄷ. 으름장을 놓다	ㅂ. 난색을 표하다

남다	*남음	대하다	*대	*대함
오다	*옴	취하다	*취	*취함
ㄴ. 싸다	*쌈	하얗다	*하얗	
비싸다	*비쌈	유명하다	*유명	
어질다	*어질음	조용하다	*조용	

반대로 술어가 명사 형태로만 존재하고 대응되는 동사/형용사 형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54)는 일부 이와 같은 사례를 보이는 자료이다.

(54) 반란	*반란하다	애착	*애착하다
오류	*오류하다	원한	*원한하다
수모	*수모하다	연민	*연민하다
환멸	*환멸하다	불공	*불공하다
불만	*불만하다	정(情)	*정하다

(54) 계열의  $N_{pr}$ 은, 이들과 의미상 긴밀한 관련이 있으면서 단일어 동사/형용사와의 대응이 가능한 (55) 계열의  $N_{pr}$ 과 대조를 이룬다.

(55) 반항	반항하다	집착	집착하다
잘못	잘못하다	증오	증오하다
망신	망신하다	동정	동정하다
실망	실망하다	예배	예배하다
만족	만족하다		

(54)와 같은 고립술어명사의 목록은 상당히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어진  $N_{pr}$ 에 대해  $V_{sup}$  구문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꾸다의 명사형인 꾸은 꾸을 하다의 연쇄를 못 이루고, 꾸을 꾸다의 동족보어 구문만 가능하다. 여기서  $V_{sup}$  구문과 동족보어 구문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실제로 두 구문 사이의 유사성을 관찰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검토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꾸와 동일한 계열의 또 다른  $N_{pr}$ 인 잡, 출과 사이의 상이성만을 지적해 두자.

- -하다형 복합동사중 X-를 하다/X-가 되다 구성이 가능한 요소 X는 모두 술어명사로 분석하고자 한다.

- xvi) ㄱ. 해당하다 - 해당을 하다 - 해당이 되다  
 ㄴ. 선행하다 - 선행을 하다 - 선행이 되다  
 ㄷ. 이룩하다 - 이룩을 하다 - 이룩이 되다  
 ㄹ. 비롯하다 - 비롯을 하다 - 비롯이 되다

- (56) ㄱ. 잠을 (\*하다 + 자다)  
    잠이 들다
- ㄴ. 꿈을 (\*하다 + 꾸다)
- ㄷ. 춤을 (하다 + 추다)

잠의 경우, 하다 구문은 불가능하지만, 주어 위치에 분포되어 기동상의 의미를 가지는  $V_{sup}$  구문이 가능하며<sup>23)</sup>, 춤의 경우는 하다 구문이 가능하다. 이때는 일반적인 하다  $V_{sup}$  구문과 달리 직업적/전문적 활동의 의미해석으로 제한된다.

$N_{pr}$  중에는 동족보어 구문 구성뿐 아니라  $V_{sup}$  구문 구성이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도 있다.<sup>24)</sup>

(54)의  $N_{pr}$ 은 다음과 같이 기능동사 구문 구성이 가능한데, 선택되는  $V_{sup}$ 은 여러 가지이다.

- (57) 반란 : X-가 반란을 일으키다
- 애착 : X-가 Y-(에 + 에게) 애착을 갖다  
        X-가 Y-(에 + 에게) 애착이 가다
- 오류 : X-가 오류를 범하다
- 원한 : X-가 Y-에게 원한을 품다
- 수모 : X-가 Y-(에게서 + 로부터) 수모를 (받다 + 당하다)
- 연민 : X-가 Y-에게 연민을 느끼다
- 환멸 : X-가 Y-(에 + 에게) 환멸을 느끼다
- 불공 : X-가 불공을 (드리다 + 올리다)

술어명사의 형태론적 특성을 보면, 한국어 어휘의 통시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한자어 구성이 대부분이지만 여러 유형의 고유 한국어  $N_{pr}$ 도 존재한다. (51) ㄴ이 잠시 보여 준 바와 같은 이 계열의  $N_{pr}$ 이 수적으로도 제한되어 있고  $V_{sup}$ 와의 결합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니다.

(58)에서 일부 자료를 소개한다.

23) 대응되는 한자어  $N_{pr}$ 인 수면은 다음의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다.

xvii) X-가 수면을 취하다

24) 예컨대 1항술어로서 X-의  $N_{pr}$ 같은 술어명사구 구성이 가능한 동전(動靚), 동태(動態), 동향(動向) 등의 명사는 대응되는 단일술어동사나 형용사도 존재하지 않고, 기능동사 구문의 구성도 불가능하다. 이항술어인 동형(同形), 동종(同種), 동시(同時) 등의 명사 —이들이 명사임은 동형-의, 동종-의나 동시-에와 같은 표현이 보이듯이 격조사와의 결합 가능성에 의해 확인된다— 역시 대응되는 단일술어동사나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은데, X-가 Y-와  $N_{pr}$ -의 단 유형의 구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의는 기능동사와 통사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능동사 개념을 원용하여 -이다 술어명사 구문을 분석해 보는 관점이 가능할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홍재성(1997)을 참조할 것.

## (58) ㄱ. -ㄷ 파생명사

싸움을 (하다 + 벌이다)	놀림을 (받다 + 당하다)
셈을 하다	따돌림을 (받다 + 당하다)
도움을 주다	시달림을 (받다 + 당하다)
믿음을 갖다	보살핌을 받다
만남을 갖다	가르침을 (주다 + 베풀다 + 받다)
버림을 (받다 + 당하다)	무서움을 (느끼다 + 타다)
미움을 받다	두려움을 (느끼다 + 갖다)
서러움을 받다	부끄러움을 타다
아쉬움을 느끼다	슬픔에 (젖다 + 잠기다 + 빠지다)

## ㄴ. -ㄱ 파생명사

달리기를 하다  
바뀌치기를 하다  
앞지르기를 하다  
팔굽혀펴기를 하다

## ㄷ. -의 파생명사

벌이를 하다  
(정역살이 + 시집살이)-를 하다  
(창갈이 + 털갈이)-를 하다

## ㄹ. -질 파생명사

걸레질을 (하다 + 치다)  
뒷걸음질을 (하다 + 치다)  
곤두박질을 (하다 + 치다)  
양치질을 하다  
(주먹질 + 발길질 + 툽질 + 망치질)-을 하다

## ㅁ. 기타 유형

얌전을 빼다  
점잔을 빼다  
(부지런 + 수다)-을 (떨다 + 피우다)  
(아양 + 호들갑)-을 떨다  
심술을 부리다

(58) ㄱ은 파생  $N_{pr}$ 의 여기base가 동사/형용사인 경우를 보인다. -ㄱ 파생  $N_{pr}$ 과 -의 파생  $N_{pr}$ 이 문제되는 (58) ㄴ-ㄷ 경우에는 여기가 단일어가 아닌 합성어일 때 기능동사 구문분포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

이상의 지적에서  $N_{pr}$ 과  $V_{sup}$ 사이의 대응관계를 둘러싼 일부 불규칙적인 양상이 소개되었는데, 이제  $N_{pr}$ 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변이의 양상을 조금 더 살펴 보자.

기본적으로 N<sub>pr</sub>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결합가능한 V<sub>sup</sub>의 유형과 그 어휘형태가 변이를 보이는데, 우선 몇 가지 동형어 쌍을 자료로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보자.

- (59) 부상<sup>1</sup>(負傷) : X-가 부상을 (입다 + 당하다)  
 부상<sup>2</sup>(浮上) : X-가 부상을 하다  
                   X-가 부상이 되다
- (60) 성원<sup>1</sup>(成員) : X-가 성원이 되다  
 성원<sup>2</sup>(聲援) : X-가 Y-에게 성원을 (하다 + 보내다)
- (61) 출장<sup>1</sup>(出張) : X-가 Y-(에 + 로) 출장을 (?하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출장<sup>2</sup>(出場) : X-가 Y-에 출장을 하다
- (62) 감정<sup>1</sup>(感情) : X-가 Y-에게 감정을 (품다 + 갖다 + 느끼다)  
 감정<sup>2</sup>(憾情) : X-가 Y-에게 감정이 있다  
 감정<sup>3</sup>(鑑定) : X-가 Y-를 감정을 하다  
                   Y-가 X-(에게서 + 로부터) 감정을 받다.

주어진 N<sub>pr</sub>을 다의어로 특징지을 때, 그 구별되는 의미acceptation에 따라, 역시 선택 가능한 V<sub>sup</sub>의 유형과 어휘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경우를 나누어 지적해 보자.

- N<sub>pr</sub>이 각각 술어적/비술어적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

경비, 보초, 사회, 심판같은 명사의 경우 행위(또는 역할)/행위자의 두 가지 의미해석을 가질 수 있는데, 행위의 술어적 의미에만 대응되어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데, 이때 선택되는 V<sub>sup</sub>의 범위는 차이가 질 수 있다.

- (63) 경비<sub>1</sub>(警備) : 경비를 불러오다  
                   경비에게 말을 걸다 (= 경비원, 경비병)  
 경비<sub>2</sub>(警備) : X-가 Y-(를 + 에) 경비를 (하다 + 보다 + 서다)
- (64) 사회<sub>1</sub>(司會) : 사회를 찾아다니다  
                   사회에게 묻다(=사회자)  
 사회<sub>2</sub>(司會) : X-가 Y-(를 + 에 + 의) 사회를 (하다 + 보다 + \*서다)

- N<sub>pr</sub>이 구별되는 두 가지 술어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

우리는 홍재성(1993)과 홍재성(1997)에서 N<sub>pr</sub> 약속과 반대가 각기 두 가지 의미로 구별되며 대응되는 V<sub>sup</sub>와의 결합양상이 상이함을 자세해 기술해 본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일반적임을 보이는 몇 가지 다른 사례를 인용해 보겠다.

N<sub>pr</sub> 삼척는 우선 (65) ㄱ-ㄴ이 보이는 두 개의 동형어로 확연히 구별된다. 또한



- ㄷ. 실수를 (하다 + 저지르다 + 범하다 + \*짓다)  
 ㄹ. 죄를 (\*하다 + 저지르다 + 범하다 + 짓다)  
 ㅁ. 범죄를 (\*하다 + 저지르다 + \*범하다 + \*짓다)  
 (71) ㄱ. 도망-을 (하다 + 치다 + \*놓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ㄴ. 도주-를 (하다 + \*치다 + \*놓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ㄷ. 도피-를 (하다 + \*치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ㄹ. 출행량-을 (하다 + 치다 + 놓다)  
       ㅁ. 탈주-를 (하다 + \*치다 + \*놓다)  
       ㅂ. 패주-를 (하다 + \*치다 + \*놓다)  
       ㅅ. 뺑소니-를 (\*하다 + 치다 + \*놓다)  
       ㅇ. 삼십육계-를 (\*하다 + ?치다 + 놓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72) ㄱ. 손해를 (입다 + 보다 + \*당하다)  
       ㄴ. 피해-를 (입다 + 보다 + 당하다)  
       ㄷ. 폐해-를 (입다 + \*보다 + 당하다)  
       ㄹ. 해-를 (입다 + \*보다 + \*당하다)

일부 공통된 의미를 지닌  $N_{pr}$ 이 일정하게 어떤  $N_{pr}$ 과 결합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그와 같은 사례를 보인다.

- (73) (패배 + 석패 + 분패 + 영패 + 완패)-을 (하다 + 당하다)  
 (74) (싸움 + 다툼 + 전쟁 + 시비 + 논쟁)-을 (하다 + 벌이다)  
 (75) (사망 + 서거 + 급사 + 동사 + 아사 + 자연사 + 병사)-을 (하다 + \*되다)

그러나 (73)-(75)와 같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성급하게 (76)의 일반화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본다.

(76)  $N_{pr}$ 의 의미특성이  $V_{sup}$ 을 선택하거나 제한한다.

(74)-(75)의 경우는 일부의 국부적 규칙성일 뿐, 현재까지 우리의 관찰로는 (76)의 가설을 지지하기에는 미흡한 듯하다. (76)의 확증을 위해서는 이 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와 같은, 좀 더 광범위한 어휘적 분석과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기능동사 현상의 해명을 지향하는 깊이 있는 어휘기술을 위해서는 기능동사의 유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기능동사의 어휘분석

(17) ㄴ-ㄷ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어떤 동사가 기능동사로 분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일차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한국어 동사 어휘의 총체를 분석·기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현 단계의 언어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기능동사 용법은 동사의 어휘의 의미적/통사적 속성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어휘적 특이성이어서 그 존재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능동사 용법이 가능하려면, 우선 통사논항으로 술어명사의 분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속성부터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속성 역시 개별 동사어휘의 의미에 의존적인 특이성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민다, 알다 등의 “인지동사”나 또는 시작하다, 계속하다와 같은 “국면동사”의 경우는 그 의미로부터 술어명사의 분포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민다, 알다가 기능동사 용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구문의 시작하다/계속하다 역시 그 통사적 행태로 보아 기능동사로 분석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77) 기영이도 기능동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계속하였다)

대체로 밟다나 짓밟다 또는 붙이다나 젖다의 경우처럼, 술어명사와의 결합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역시 술어명사 구문을 모두 기능동사 구문으로 특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sup>26)</sup>

우리는 기능동사 용법의 어휘의존적 특이성/예측불가능성을 기능동사 현상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가정하고, 기능동사의 어휘부—이론적 어휘부이건, 전산어휘부 또는 일반인쇄 사전이건 간에—표상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어 동사의 총체를 대상으로 그 동사 어휘 하나하나의 가능한 용법을 분석·기술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특히 기능동사 용법의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홍재성·김현권의 (1997)은 이러한 작업의 단편적이 표본을 보인다. 이 작업이 완결되면 한국어에서 기능동사 용법을 보이는 동사의 어느 정도 완벽한 목록이 작성될 것이다.

기능동사의 어휘적 분석은 기능동사 용법을 한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 Ⅲ에서 제시한 기능동사의 체계에 따라, 주어진 기능동사가 어떤 유형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동사의 용법과 그 유형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질문(16)에서 제기된 술어명사의 한정과 그 유형화 작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동사 분석과 별도로, 또 그것과 병행해서 수행되어야 할 대규모 과제인데 이 역시 명사어휘 총체에 대

26) 밟다/짓밟다는 다음과 같이 -을 보어 자리에 술어명사가 분포될 수 있다.

xix) 지혜는 신속하게 수속을 밟았다. (=수속하다)

xx) 우석이는 지혜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러나 xix)만이 기능동사 구문으로 분석될 것이다.

붙이다는 -을 보어 위치에 술어명사가 실현되는 기능동사 용법이 가능하다.

xxi) 기영이는 김중사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경례하다)

xxii) 순주는 이 대목에 자세한 설명을 붙였다. (=설명하다)

젖다 역시 주어 위치에 인물명사가 분포되고 -에 보어 위치에 술어명사가 오는 다음의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다.

xxiii) 그는 (깊은 슬픔 + 실의)-에 젖어 들어갔다.

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재론하기로 하고 동사 중심의 시각에서 논의를 계속해 보자.

개별 기능동사의 유형분석을 시도해 보면, 일반 어휘동사가 다양한 구문적 실현과 의미해석, 한마디로 다양한 용법을 보이듯이 기능동사 역시 단일하게 유형화되지 않고 복잡한 성격을 보이는 경우를 관찰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중요하고 흥미있는 기능동사의 어휘적 표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술어명사의 통사위치나 술어명사 자체의 어휘적 특성에 따라 단일형태가 이중적, 또는 다중적 용법을 보이는 기능동사의 사례를 몇 경우 제시해 본다.<sup>27)</sup>

- 먹다

(가) 표준기능동사

- (78) ㄱ. X-가 (접 + 애)-를 먹다  
 ㄴ. X-가 Y-(기로 + 고) 마음을 먹다 (=생각을 하다)

(나) 전환기능동사

- (79) Y-가 X-(에게(서) + 로부터) | 구박을 먹다(=받다)  
 | 욕을 먹다(=듣다)  
 | 뇌물을 먹다(=받다)

- 올리다

(가) 표준기능동사

- (80) X-가 | 개가를 올리다  
 | 득점을 올리다(=하다)

(나) 존칭기능동사

- (81) X-가 Y-에게 (문안 + 인사)-를 올리다(=드리다)

- 치다

(가) 표준기능동사

- (82) ㄱ. X-가 (헤엄 + 몸부림)-을 치다

27) 준다, 받다 또는 있다 등 개별 한국어 기능동사의 분석에 대해서는 박형익(1989), Nho(1992), Chung(1998) 등을 참조할 것.

- ㄴ. X-가 Y-에게 | 사기를 치다  
                          | 장난을 치다(=하다)
- ㄷ. X-가 Y-(에 + 을) 꾀방을 치다(=놓다)
- ㄹ. X-가 Y-로 | 뺑소니를 치다  
                          | 도망을 치다(=하다)
- ㅁ. X-가 Y-(에게 + 에 대해) 박수를 치다(=보내다)
- ㅂ. X-가 Y-(에 + 를) 걸레질을 치다(=하다)
- ㅅ. X-가 Z-에게 Y-고 (소리 + 곱함)-을 치다
- ㅇ. X-가 Z-(에게 + 를) Y-고 (야단 + 호통)-을 치다

(나) 자동사적 기능동사

(83) (비바람 + 눈보라)-가 치다

- 미치다

기능동사 미치다는 결합되는 술어명사 영향이 대격보어 위치에 오는 타동사적 표준기능동사 구문과 주어 위치에 오는 자동사적 구문이 모두 가능해서 중립동사와 같은 성격을 보이는데, 일반 어휘동사의 경우처럼 이 두 구문 사이에 의미상 주동/사동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 (84) ㄱ. X-가 Y-(에게 + 에) 영향을 미치다(=끼치다, 주다)  
      ㄴ. Y-(에게 + 에) X-(로부터 + 의) 영향이 미치다

- 끼치다

기능동사 끼치다는 미치다와 유사한데, 선택되는 술어명사로 영향 이외에 손해, 해, 누, 폐해 등이 가능하다.

- (85) ㄱ. X-가 Y-(에게 + 에) 영향을 끼치다(=주다)  
      ㄴ. Y-(에게 + 에) X-(로부터 + 의) 영향이 끼치다
- (86) ㄱ. X-가 Y-(에게 + 에) (손해 + 해 + 누 + 폐해)-를 끼치다  
      ㄴ. Y-(에게 + 에) (??손해 + 해 + 누 + ?폐해)-가 끼치다

(86)에서 보듯이 두 번째 부류의 술어명사와 결합되면 두 구문 사이의 대응이 완전하지 못하다. 술어명사가 주어인 경우 제 1논항의 실현이 부자연스럽고, 어휘적 제약도 있는 듯하다.

- 하다

기능동사 구문의 하다는 기본적으로 표준기능동사이다. 하다 기능동사구문은 각주 11)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어위치 술어명사의 논항 수와 그 통사적 실현 양상에 따라 표면적으로 다양한 통사유형을 보인다.

한편 하다 기능동사 구문은 다른 기능동사 구문과의 대응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하위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소개되는 유형은 잠정적인 것으로 하다 기능동사 구문의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수정·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하다<sub>1</sub>↔ 하다<sub>1</sub>↔

다음의 (87) ㄱ-ㄴ의 술어명사는 1항술어여서 대응되는 단일어휘동사인 N<sub>pr</sub>-하다는 자동사구문을 이룬다.

- (87) ㄱ. 취침, 기침, 만발, 출생, 탄생, 사망, 별세, 요절, 급사, 동사, 발정, 방심...
- ㄴ. 급진전, 반전, 붕괴, 불발, 수축, 연소, 긴장, 응고, 응결, 지체, 소멸, 마멸, 악화, 공전, 탄생, 전복, 침전, 실직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술어명사는 되다 기능동사구문 가능성에 있어 대조가 된다. (87) ㄴ 계열의 술어명사는 하다 구문과 동의관계를 이루는 (88) ㄴ의 되다 구문이 가능하지만 (87) ㄱ 계열의 술어명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 (88) ㄱ. X-가 (수축 + 연소 + 소멸)-을 하였다.
- ㄴ. X-가 (수축 + 연소 + 소멸)-이 되었다.
- (89) ㄱ. X-가 (취침 + 만발 + 사망)-을 하였다.
- ㄴ. \*X-가 (취침 + 만발 + 사망)-이 되었다.

이러한 대응관계의 유무에 따라 (87) ㄱ의 술어명사와 양립하는 하다를 하다<sub>1</sub>↔, (87) ㄴ의 술어명사와 양립하는 하다를 하다<sub>1</sub>↔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다<sub>1</sub>↔과 결합하는 술어명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2항술어도 있다.

- (90) 감동, 도착, 출발, 변화, 숙달, 승격, 승진, 당첨, 심취

(90)의 술어명사 역시 대응되는 단일어휘 동사인 N<sub>pr</sub>-하다는 자동사 구문을 이룬다.

- (91) ㄱ. X-가 Y-에 감동하다
- ㄴ. X-가 Y-에 도착하다
- ㄷ. X-가 Y-에서 출발하다
- ㄹ. X-가 Y-로 (변화하다 + 승격하다 + 승진하다)
- ㅁ. X-가 Y-에 심취하다

하다1<sub>ㄴ</sub>의 특징적인 점은 단순히 되다 구문에 대응될 뿐 아니라 이 때 되다 구문은 하다 구문과 동일하게 X를 주어로 취하고 의미해석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되다 구문과 대응되는 다음의 2항, 3항술어 하다 구문과 구별된다.

- (92) ㄱ. 개선, 개최, 건설, 검토, 분석, 연구, 조사, 파괴, 판매...  
 ㄴ. 보고, 연락, 제공

(92) ㄱ-ㄴ의 술어명사의 경우, 대응되는 단일어휘동사인 N<sub>pr</sub>-하다는 타동사 구문을 이루고 되다 구문을 구성할 때는 논항위치와 격표지가 바뀌고 하다 구문에 대해 피동의 해석을 받는다.

- (93) ㄱ. X-가 Y-를 건설하다  
 ㄴ. X-가 Y-를 건설을 하다  
 ㄷ. Y-가 X-에 의해 건설이 되다  
 (94) ㄱ. X-가 Z-에게 Y-를 제공하다  
 ㄴ. X-가 Z-에게 Y-를 제공을 하다  
 ㄷ. X-에 의해 Z-에게 Y-가 제공이 되다

하다1<sub>ㄴ</sub>/ 하다1<sub>ㄴ</sub>의 유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이 두 유형의 구별이 (87) ㄱ-ㄴ과 (90)의 술어명사 및 이에 대응되는 N<sub>pr</sub>-하다 동사의 의미·통사적 속성과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하다1<sub>ㄴ</sub>과 양립하는 술어명사가 대체로 상태변화나 과정을 나타내고, 따라서 제 1논항의 의미역이 비행위자(경험자 또는 피동자)로 특징지워질 수 있으나, 이 점은 하다1<sub>ㄴ</sub>과 양립하는 술어명사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90)의 부류로 인용된 도착이나 출발의 경우는 이와 같이 특징짓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도착, 출발의 제1논항을 비행위자로 특징짓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성은, ‘죽음’을 뜻하는 술어명사들이 모두 (87) ㄱ 계열에 속한다는 점이다.

#### 나. 하다2

다음 (95)의 술어명사는 이항술어이면서 대응되는 단일어휘동사 N<sub>pr</sub>-하다는 자동사 구문을 구성한다.

- (95) 패배, 패소, 완패, 영패, 분패, 참패, 판정패, 망신  
 (96) X-가 Y-에게 (패배 + 패소 + 참패)-를 하였다.

이들 하다 구문은 특징이 통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당하다 구문과 대응되는 점이다.

- (96)' X-가 Y-에게 (패배 + 패소 + 참패)-를 당하였다.

(97)의 일항술어 명사도 동일한 속성을 보인다.